



카날 플러스 그룹, NDS 에 불공정 경쟁행위 보상소송 제기 NDS 의 행위는 디지털 TV 시장의 경쟁 제거하려는 의도

2002 년 3 월 12 일 파리;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– 비방디 유니버설 (Vivendi Universal – 뉴욕증시기호: V; 파리증시기호: EX FP) 소속 사업본부 중의 하나인 카날 플러스 그룹 (Canal+ Group)과 그 자회사들인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 S.A. (Canal+ Technologies S.A.)와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 인코퍼레이티드 (Canal+ Technologies, Inc. – 이하 “카날플러스”)는 오늘, 뉴스 코퍼레이션 (News Corporation Ltd. – 뉴욕증시기호: NWS)의 자회사인 NDS 그룹 (NDS Group plc – 나스닥/나스닥 유럽 기호: NNDS)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오늘 발표했다.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미 연방 법원에 제출된 고소장에서 카날 플러스는 NDS 가 디지털 TV 시장에서의 카날 플러스의 경쟁적 위치를 저해하기 위한 공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

카날 플러스의 주장에 따르면 NDS 는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의 보안시스템에 대한 불법공격을 감행했다.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의 보안시스템은 승인된 고객들에만 한해 디지털 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지금까지 한 번도 침투된 적이 없다. NDS 는 대규모의 자금 및 자원을 동원해 카날 플러스의 디지털 TV 스마트 카드의 소스 코드를 추출한 후 위조업자들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에 그 코드를 제공했다. 소스 코드가 인터넷 상에 공개되자 범죄조직들은 엄청난 양의 위조 카드를 시중에 유통시켰다.

카날 플러스는 NDS 의 행위로 인해 10 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 고소장에서 카날 플러스는 NDS 의 행위가 불법공모 및 부패조직법, 저작권법, 캘리포니아 주 불공정 경쟁법규 등을 포함, 다수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.

프랑소아 카라올 (François Carayol) 카날플러스 그룹 총괄부사장 겸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 회장은 “디지털 TV 의 미래는 업계가 함께 협력하여 송출신호 도용을 저지하고 신호분산 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에 달려있다” 라고 말하며 “어느 개인이나 기업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. 카날 플러스는 NDS 의 불법행위 저지를 위해 이러한 법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다. 카날 플러스는 NDS 가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공정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” 라고 덧붙였다.

###

이번 소송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.

<http://www.canalplus-technologies.com> or

<http://www.actiononecanalplus.com>

디지털 TV 스마트 카드란 ?

스마트 카드는 디지털 TV 의 무단시청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‘조건 액세스 시스템 (conditional access system)’에 필수적인 요소다 . 스마트 카드를 디지털 셋탑 박스에 삽입하면 가입자가 특정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준다 .

카날 플러스 그룹 및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

카날 플러스 그룹 (Canal+ Group)은 비방디 유니버설 (Vivendi Universal)의 유럽 지역 TV 및 영화 사업본부로서 프리미엄 및 테마별 유료 TV 채널과 쌍방향 TV 서비스의 제작 및 보급 , 영화 및 TV 프로그램의 제작 및 보급 , 디지털 TV 테크놀러지 , 스포츠 마케팅 , 인터넷 콘텐츠 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업체다. 2001 년 말 현재, 카날 플러스 그룹은 프리미엄 TV 채널 , 디지털 TV 채널 및 위성 플랫폼에 약 1,590 만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개인 가입자의 수는 총 610 만 명에 이르고 있다. 카날 플러스 그룹은 11 개의 유럽 국가들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.

카날 플러스 그룹의 자회사인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 (Canal+ Technologies)는 디지털 및 쌍방향 TV 소프트웨어 솔루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손꼽히는 업체로서, 1,250 만개의 셋탑 박스에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다 . 전세계적으로 20 여 개 이상의 디지털 사업자 및 방송 사업자들이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의 쌍방향 TV 미들웨어 ‘미디어 하이웨이 (MEDIASHIGHWAY™)’, 조건부 시청 시스템 ‘미디어가드 (MEDIAGUARD™)’를 사용하고 있다. 이에는 유럽의 모든 카날 플러스 그룹 플랫폼과 미국의 윈퍼스트 (WINfirst), 영국의 ITV 디지털 (ITV Digital), 아시아의 아스트로 미셋 (Astro Measat) 과 지 TV (ZeeTV), 그리고 중동의 오비트 (Orbit) 등이 포함되어 있다 . 미국 자회사인 카날 플러스 테크놀로지스는 캘리포니아 쿠퍼티노에 본사를 두고 있다 .

보도 문의

Weber Shandwick
Simon Eldridge

전화 : +852-2533-9911 또는 +852-9194-4515